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5 | 꽃 피는 봄이 오면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지문인 시나리오 「꽃 피는 봄이 오면」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미장센'의 의미**를 묻는 문제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단다. 특히 연희와 현우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인 경제적 문제를 파악하거나, 현우가 제자 용석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는 과정을 <보기>의 상황과 연결해 분석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S#5에서 연희와 현우가 헤어질 때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예리하게 잘 찾아냈구나! 그 나무는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초라한 현실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현우의 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미장센**이란다. 잎을 다 떨군 채 링거액에 의지하는 나무의 모습이, 교향악단 낙방 후 연인과도 멀어진 채 꿈 하나로 버티는 현우의 고단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돼.



현우와 연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현우는 연희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며 음악을 하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건가요?

현우는 음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예술적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연희의 입장에서는 음악만 해서 살 수 없다는 경제적인 현실이 더 절실했지. 결국 **꿈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현우와, 현실적인 안정을 바라는 연희의 가치관 차이**가 두 사람을 이별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거란다.





선생님, 용석이 아버지는 왜 용석이 음악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시나요? 용석이 관악부 부장이라는 걸 보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용석 아버지는 탄광촌에서 광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아버지는 예술가로서 겪는 현실적 고통과 가난을 자식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S#74에서 용석이 여자 친구 수정이랑 헤어졌다고 말할 때, 왜 선생님인 현우가 갑자기 더 흥분해서 화를 내는 건가요?

그건 용석의 모습에서 자신이 책임지지 못해 떠나보낸 옛 연인 연희와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야. 용석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정과 헤어졌다고 하자, 현우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듯 “힘들다고 헤어지는 게 사랑이냐, 남자가 책임을 져야지”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지.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5 | 꽃 피는 봄이 오면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S#**(‘장면 번호(S#)를 사용하여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임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5. 연희네 아파트 단지 - 늦은 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무슨 노래인지 모를 단순한 노랫가락을 콧노래로 흥얼대는 연희. / 조금 슬픈 노랫가락.  
**다음 소설 생각이 안 나는지 자꾸만 같은 곳을 반복하고 있다.**(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 나아가지도 헤어지지도 못한 채 이어지는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미장센. ‘연희가 부르는 노랫가락이 자꾸 끊기는 것은 현우와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아.’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듣고 있던 **현우**(실패한 연주가).

현우: 하지 마, 그거.

연희: 좋아서 하나 뭐? 우울해지면 그냥 생각나. 곡이 너무 우울해서. 이젠 잘 기억도 안 나고 자꾸 틀리네.

현우: …….

연희: 그땐 우리가 참 많이 사랑했었나 봐. (**장난스러우면서도 장난만은 아닌** (지시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빠, 한 번만 불러 줄래?**(현우에 대한 연희의 애정 표현)

현우: 욕먹어. 사람들 다 자는데.

연희: 아 참, 우리 오빠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연주 안 하지……. 미안. 또 까먹었네.

현우: 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 연희: 나…….

현우: ……?/ 연희: **오빠가 준 목걸이 팔아서 술 먹었어.**(연희는 현우가 준 목걸이를 판 돈으로 술을 마셨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연희: 미안해. / 현우: 잘했어. 그 얘기 할려고 전화한 거야?

연희: 그냥…… 나 버린 남자랑 나 좋다는 남자랑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해 볼려고.

현우: 버리긴 뭘 버려. 누가 들으면 진짜 줄 알겠네.

연희: 그럼 버린 게 아님 뭐야? / 현우: **음악만 하는 사람이랑은 못 산다며.**(두 사람의 갈등이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우’와 ‘용석’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연희: 누가 음악하지 말래?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연희는 현우가 학원을 통해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꿈을 좇기를 바라고 있음.)

현우: **그만하자. 왜 또 그래.**(음악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연희는 현우의 그런 모습에 익숙한 듯 대꾸도 없이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현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다.

현우: ..... / 연희: 오빠두 많이 늙었다. 다행이야...... 나만 늙은 줄 알았는데.

**희미한 불빛조차 없이 컴컴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낡은 아파트 현관.**(현우와 연희의 위태로운 관계를 암시하는 공간적 배경. '컴컴한 아가리처럼 묘사된 '아파트 현관'은 연희와 현우의 단절된 미래와 위태로운 관계를 암시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일어나는 현우.

현우: (연희를 보다가) 무서우면 문 앞까지 같이 가 줄까?

연희: (허탈한 웃음이 보이는 듯) 내가 외로워 보여? / 현우: (보다가) .....

**돌아서 가는 현우.**(현우는 현실과 타협하지 못해 연희를 붙잡지 못함.) 연희는 현우의 뒷모습을 볼까 봐 고개를 돌리고 앉아 잠시 벤치 옆의 나무를 보고 있다. **낙엽을 다 떨군 채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현우의 상황을 상징하는 소품)

현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연희는 없고 불 꺼진 아파트들 중에서 4층 작은 창에 불이 켜진다.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오는 현우.

[중략 부분 줄거리] 연희는 현우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현우는 탄광촌의 도계 중학교 관악부 임시 지도 교사를 맡아 도계로 내려온다. 관악부 부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연주에 임하지만 각자의 가정 사정으로 연습에 몰두하기 어렵다. 관악부 부장인 용석은 광부인 아버지의 반대로 관악부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현우는 용석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고 돌아온다.

**S#74. 거리 - 낮 (눈)**(해당 장면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길을 걸으며 서로의 상처와 고민을 나누는 교감의 과정'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 서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 안대를 하고 있다. 눈 쌓인 거리를 걷는 선생님과 학생. 현우와 용석이다. 문 닫힌 약국도 지나고, 약국 안을 용석이 몰래 들여다보고, 길 건너 떡 팔고 있는 재일이 할머니도 보고, 철길도 지나고..... **눈이 다시 내리다가 그쳤다가.....**(음악이 좋아 음악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용석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배경. "눈이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 날씨"는 용석의 불안정한 심리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 이어지는 현우와 용석의 대화.

현우: 이번엔 너야? / 용석: (눈이 간지러운지 긁적긁적) .....

현우: 에이 정말...... 드럽게. / 용석: 뭐 어때요? .....치. 어떻게 됐어요?

현우: 니네 아버지...... 만나 뵈니까 누군지 알겠더라. 지난번엔 껌껌한 밤이라 그리구 술을 너무 많이 - 드셔서 얼굴을 잘 못 알아봤는데......

용석: 예? / 현우: **옛날에는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야.**(용석 아버지를 치켜세워 줌으로써 용석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라는 선택을 하라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음.)

용석: 그래요?

현우: 응......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암스트롱의 '헤븐스 도어'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들 했거든...... 바로 니네 아버님이야.

용석: (흐뭇해서 웃으며) 난 다 뺏인 줄 알았는데......

현우: 야.....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뺏을 치는 아버지가 어딴냐? 용석아...... 아버지 말씀두 일리가 있더라구. 난 아버님이 용석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용석이 음악을 하는 것을 용석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음.)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라.

용석: ..... / 현우: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일 하면 좋지 뭐. 선생님 봐 여기 와서 이려고 있잖니?**(현우는 자신의 꿈인 연주가가 되지 못하고 외진 탄광촌에 선생으로 와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 현우가 용석에게 이 말을 한 이유를 묻는 문제에서 '음악가로서 겪어야 할 현실적 고통을 용석은 피하길 바라기 때문에'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용석: 여기가 뭐 어때서요?

현우: 어…… 무슨 말이나면. 그게 말야……. 너 여자 친구 맛있는 것두 사 주구, 선물두 평평 해 주구 그러구 싶지 않니? 근데 음악하면 그게 잘 안되거든. 케니 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상고 가서 장사하면 돈 잘 벌잖아……. 수정이두 그런 거 원할 걸 아마?(용석에게 현실을 위해 음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음.)

용석: **그런 게 뭐 중요해요.**(용석은 돈을 잘 버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나 그래서 때려쳤어요. 수정이. / 현우: 뭐? 왜?

용석: 나보다 나이두 한 살이나 많은 게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연습하는데 만나자구 전화하구……. 칭얼거리거나 하구, 뭐 사 달라 그러구, 뭐 없다구 짜증 내구. 내가 뭐 재벌 집 자식이에요? **광부 집 자식이 지!**(‘용석이 수정과 헤어지는 이유 중에는 용석이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도 있을 거야.’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용석은 여자 친구 수정이가 자신에게 칭얼거리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현우: 그치……. 넌 광부 집 자식이지. 야, 그래두……. **얼마 전까지만 해두 좋다구 나팔두 불어 주구 그러더니**(수정에 대한 용석의 마음이 나타남.) 고새 맘이 바뀌어서 여자를 버리냐? 남자가 그럼 안 되지. 안 그래?

용석: 뭘 버려요. 무슨 물건이에요, 수정이가…….

현우: …… 그치……. 맞아 니 말이……. 너 있잖아, 그래두 그럼 안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놈아! 그래도 니가 좋아서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남자가.**(자신이 연희를 책임지지 못한 모습이 떠올라 자책하는 마음에 흥분함. ‘현우가 용석에게 흥분하며 화를 내는 것은 용석의 태도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거야.’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현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자신의 상처를 제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자책하는 마음에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용석: 글썸……. 책임을 질 수가 없다니깐요! 무슨 책임을 져요. 제가 뭘 어쨌다구요.

현우: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이 확 확 바뀌냐?

용석: 나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애를 만날 수가 없다니깐요. 선생님이 용돈 주실래요?

현우: 그럼 수정이를 설득해 보든지. 그 애도 너 좋아하던 눈치던데.

용석: 그리고 개는 다리도 너무 짧아요.

현우: 야……. 고새 또 뭐가 잘못돼 가지구는……. 서로 쪼금 힘들다구 헤어지면 그게 사랑이니? 그래, 안 그래? 남자가 의리가 있지.

용석: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 현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티격태격…….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가며 용석을 달래 보는 현우.

눈발이 다시 조금씩 날린다.

-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 핵심 정리

- 갈래: 시나리오
- 성격: 희망적
- 주제: 따뜻한 인간애를 통한 희망의 회복
- 특징
- 현우와 아이들의 소통을 통한 인물들의 성장을 보여 줌.
- 미장센을 활용해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2004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영화 시나리오로,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이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희망과 꿈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패한 연주가인 현우와 꿈꿀 수 있는 미래조차 없는 쇠락한 탄광촌의 아이들이 서로의 암울한 현실을 보듬어 주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작품은 이와 같은 인물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을과 겨울을 거쳐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여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전체 줄거리

교향악단 연주를 꿈꾸던 트럼펫 연주가 현우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오랜 연인이었던 연희를 떠나보내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원도 도계 중학교의 관악부 임시 교사로 부임한다. 쇠락한 탄광촌의 중학교 관악부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해야 하고, 현우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꽃피우는 아이들에 감화되어 함께 대회 준비에 몰두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만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현우와 아이들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을을 떠난 현우는 헤어졌던 연인 연희에게 전화하고 다시 봄을 꿈꾼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극수필 05 | 꽃 피는 봄이 오면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5. 연희네 아파트 단지 - 늦은 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무슨 노래인지 모를 단순한 노랫가락을 콧노래로 흥얼대는 연희. / 조금 슬픈 노랫가락.

다음 소절 생각이 안 나는지 자꾸만 같은 곳을 반복하고 있다. / 듣고 있던 현우.

현우: 하지 마, 그거.

연희: 좋아서 하나 뭐? 우울해지면 그냥 생각나. 곡이 너무 우울해서. 이젠 잘 기억도 안 나고 자꾸 틀리네.

현우: …….

연희: 그땐 우리가 참 많이 사랑했었나 봐. (장난스러우면서도 장난만은 아닌) 오빠, 한 번만 불러 줄래?

현우: 욕먹어. 사람들 다 자는데.

연희: 아 참, 우리 오빠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연주 안 하지……. 미안. 또 까먹었네.

현우: 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 연희: 나…….

현우: ……? / 연희: 오빠가 준 목걸이 팔아서 술 먹었어.

잠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연희: 미안해. / 현우: 잘했어. 그 얘기 할려고 전화한 거야?

연희: 그냥…… 나 버린 남자랑 나 좋다는 남자랑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해 볼려고.

현우: 버리긴 뭘 버려. 누가 들으면 진짜 줄 알겠네.

연희: 그럼 버린 게 아님 뭐야? / 현우: 음악만 하는 사람이랑은 못 산다며.

연희: 누가 음악하지 말래?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

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현우: 그만하자. 왜 또 그래.

연희는 현우의 그런 모습에 익숙한 듯 대꾸도 없이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현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다.

현우: …… / 연희: 오빠두 많이 늙었다. 다행이야……. 나만 늙은 줄 알았는데.

희미한 불빛조차 없이 컴컴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낡은 아파트 현관. / 일어나는 현우.

현우: (연희를 보다가) 무서우면 문 앞까지 같이 가 줄까?

연희: (허탈한 웃음이 보이는 듯) 내가 외로워 보여? / 현우: (보다가) …….

돌아서 가는 현우. 연희는 현우의 뒷모습을 볼까 봐 고개를 돌리고 앉아 잠시 벤치 옆의 나무를 보고 있다. 낙엽을 다 떨군 채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

현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연희는 없고 불 꺼진 아파트들 중에서 4층 작은 창에 불이 켜진다.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오는 현우.

[중략 부분 줄거리] 연희는 현우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현우는 탄광촌의 도계 중학교 관악부 임시 지도 교사를 맡아 도계로 내려온다. 관악부 부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연주에 임하지만 각자의 가정 사정으로 연습에 몰두하기 어렵다. 관악부 부장인 용석은 광부인 아버지의 반대로 관악부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현우는 용석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고 돌아온다.

S#74. 거리 - 낮 (눈)

학교 밖에 서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 안대를 하

고 있다. 눈 쌓인 거리를 걷는 선생님과 학생. 현우와 용석이다. 문 닫힌 약국도 지나고, 약국 안을 용석이 몰래 들여다보고, 길 건너 떡 팔고 있는 재일이 할머니도 보고, 철길도 지나고…… 눈이 다시 내리다가 그쳤다가…… 그러면서 쪽 이어지는 현우와 용석의 대화.

현우: 이번엔 너야? / 용석: (눈이 간지러운지 긁적긁적) …….

현우: 에이 정말……. 드럽게. / 용석: 뭐 어때요? ……치. 어떻게 됐어요?

현우: 니네 아버지……, 만나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 지난번엔 깜깜한 밤이라 그리구 술을 너무 많이 —

드셔서 얼굴을 잘 못 알아봤는데…….

용석: 예? / 현우: 옛날에는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야.

용석: 그래요?

현우: 응…….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암스트롱의 ‘해븐스 도어’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들 했거든……. 바로 니네 아버님이야.

용석: (흐뭇해서 웃으며) 난 다 뺨인 줄 알았는데…….

현우: 야……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뺨을 치는 아버지가 어딴냐? 용석아……. 아버지 말씀두 일리가 있더라구. 난 아버님이 용석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라.

용석: …… / 현우: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일 하면 좋지 뭐. 선생님 봐 여기 와서 이려고 있잖니?

용석: 여기가 뭐 어때서요?

현우: 어…… 무슨 말이나면. 그게 말야……. 너 여자 친구 맛있는 것두 사 주구, 선물두 평평 해 주구 그러구 싶지 않니? 근데 음악하면 그게 잘 안되거든. 케니 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상고 가서 장사하면 돈 잘 벌잖아……. 수정이두 그런 거 원할 걸 아마?

용석: 그런 게 뭐 중요해요. 나 그래서 때려쳤어요. 수정이. / 현우: 뭐? 왜?

용석: 나보다 나이두 한 살이나 많은 게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연습하는데 만나자구 전화하구……. 칭얼거리거나 하구, 뭐 사 달라 그러구, 뭐 없다구 짜증 내구. 내가 뭐 재벌 집 자식이에요? 광

부 집 자식이!

현우: 그치…… 넌 광부 집 자식이. 야, 그래두……. 얼마 전까지만 해두 좋다구 나팔두 불어 주구 그러더니 고새 맘이 바뀌어서 여자를 버리냐? 남자가 그럼 안 되지. 안 그래?

용석: 뭘 버려요. 무슨 물건이에요, 수정이가…….

현우: …… 그치…… 맞아 니 말이……. 너 있잖아, 그래두 그럼 안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 놈아! 그래도 니가 좋아서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남자가.

용석: 글썄…… 책임을 질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책임을 져요. 제가 뭘 어쨌다구요.

현우: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이 확 확 바뀌냐?

용석: 나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애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선생님이 용돈 주실래요?

현우: 그럼 수정이를 설득해 보든지. 그 애도 너 좋아하던 눈치던데.

용석: 그리고 개는 다리도 너무 짧아요.

현우: 야…… 고새 또 뭐가 잘못돼 가지구는……. 서로 조금 힘들다구 헤어지면 그게 사랑이니? 그래, 안 그래? 남자가 의리가 있지.

용석: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 현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티격태격……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가며 용석을 달래 보는 현우.

눈발이 다시 조금씩 날린다.

—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연희는 현우가 준 목걸이를 판 돈으로 술을 마셨다고 말한다.
- ② 현우는 밤늦은 시간 아파트 단지에서 악기 연주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 ③ 현우는 용석의 아버지가 과거에 유명한 연주가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라고 말한다.
- ④ 현우는 용석의 아버지를 만난 뒤 용석이 음악을 계속하는 것에 찬성하게 되었다.
- ⑤ 용석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자 친구의 태도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였다.

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사를 통해 인물의 과거 갈등 원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장면 번호(S#)를 사용하여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③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점차 밝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지시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남녀 간의 이별'과 '사제 간의 유대'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고난도** 3.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민: 연희가 부르는 노랫가락이 자꾸 끊기는 것은 현우와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 같아.
- ② 윤서: 현우가 용석과 대화하며 흥분하는 것은 용석의 태도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거야.
- ③ 수빈: 용석의 아버지가 음악을 반대하는 것은 용석이 예술로 인한 경제적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겠군.
- ④ 지혜: 연희가 링거를 매단 나무를 보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음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
- ⑤ 윤채: 용석이 수정과 헤어지는 이유 중에는 용석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도 있을 거야.

**고난도**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미장센'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장센은 화면 속의 모든 시각적 요소(세트, 소품, 조명, 인물의 배치 등)를 배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심리나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미장센을 활용하고 있다.

- ① 컴컴한 아가리처럼 묘사된 '아파트 현관'은 연희와 현우의 단절된 미래와 위태로운 관계를 암시한다.
- ② 연희가 보는 '링거를 매단 나무'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 현우의 고단한 삶을 형상화한다.
- ③ S#74에서 '눈이 내리다가 그쳤다가 하는 날씨'는 용석의 불안정한 심리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 ④ '문 닫힌 약국'과 '철길'이 이어지는 거리는 용석이 음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 ⑤ 연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자꾸 틀리는 '반복적 행위'는 정체된 인물들의 관계를 표현한다.

5. 윗글의 '연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우의 음악적 재능을 시기하여 그의 연주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 ② 현실적인 결핍을 느끼면서도 현우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
- ③ 현우를 버리고 부유한 남자에게 가기 위해 일부러 목걸이를 팔았다.
- ④ 자신의 나이 듦을 비관하며 현우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현우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

6. 윗글의 '용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 ② 자신의 가정 형편이 광부 집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 ③ 여자 친구 수정이가 자신에게 칭얼거리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꼈다.
- ④ 현우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과거에 훌륭한 음악가였다는 말을 믿게 된다.
- ⑤ 현우 선생님이 자신을 달래기 위해 하는 말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고난도** 7.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전체 줄거리: 현우는 돈을 위해 음악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자존심 있는 트럼펫 연주자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떠나보낸 옛 연인 연희가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던 날, 현우는 강원도 탄광촌에 있는 중학교 관악부 교사 자리에 지원한다.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는 악기를 들고 모여 있는 아이들. 현우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할머니와 살고 있는 재일, 케니 지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용석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현우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눈이 맑은 마을 악사 수연도 조심스레 현우의 마음을 보듬어 준다. 현우와 함께 연습한 아이들은 성공리에 연주를 마친다.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우는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따뜻한 봄기운을 느낀다.

제작 노트
[가]

- ① 꽃 피는 봄이 오기까지 상처 입은 현우가 견뎌야 하는 시간을 겨울 풍경에 담을 것이다.
- ② 강원도 탄광촌의 쓸쓸한 풍경을 정감 있고 따뜻

한 시선으로 담은 영상을 보여 줄 것이다.

- ③ 현우와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내어 서로가 소통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낼 것이다.
- ④ 현우와 관악부 아이들의 연주 음악을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⑤ 어린 나이에 꿈을 접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초라한 현우의 모습과 중첩시켜 냉정한 현실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8. 윗글의 '현우'와 '용석'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여 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 ②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있다.
- ③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다.
- ④ 도시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탄광촌으로 자진해서 내려왔다.
-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나 스승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9~10]**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S# 73. 사무실 옆, 테이블 - 낮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현우.  
잠시 후 종이컵 두 개와 소주 뒷병, 김치 한 종지를 가져오는 용석 아버지.

용석 부: 저 안에 들어갈 때 말야. 인차를 타고 들어가거든? 저거 보이지 노란색 차. 저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은 30세 때는 30키

로, 40에는 40키로, 50에는 50키로로 간다구. 용석이 그 놈, 지금 어릴 때 저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었나부네 싶으면 늦은 거 아닙니까?

현우: 네……. 근데 용석이는 소질이 있습니다.

용석 부: 소질……. 나도 있었지. 나도 안 해 본 거 없어요. 용석이가 얘기합디까? 나도 연주 생활을 좀 해봤어. 부산에서……. 악기라고 잡아본 건 밤무대 몇 년 해 본 게 다지만……. 그래서 내 좀 알아요. 음악이란 거……. 좋지……. 술에 취해 가지구 집에 들어와서 용석 에미한테 나팔을 불어 주면 술주정을 집에까지 와서 하냐고 하면서도 좋아했지. 글썸 그 재미로 나 같은 놈한테 불어살았는지도 모르지만……. 호강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저 거 하나 날고 죽었어. ‘부’짜가 들어가는 직업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파출부… 청소부… 잡부… 광부! 용석이 녀석은 ‘사’짜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하고 싶어요. 검사… 의사… 박사… 안 되면 최소한 장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장사!

현우: 악사…….

용석 부: (현우를 찌리며) 내가 두려운 게 뭔지 아쇼? 저 놈이 클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거요. 저 놈 클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야지. 그게 내 지금 하나 남은 바람이요. 그래도 이런 아버지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테니까.

현우: 아이의 꿈을 꺾으시면 꼭 그렇지도 않죠…….

용석 부: 꿈?…… 선생님은 꿈이 뭐니까?

현우: 예?

용석 부: 하긴, 선생님은 훌륭한 부모님 만나서 곱게 자라면서 꿈을 이룬 거겠지. 우리 같은 놈들은 꿈도 가려서 꺾어야지. 나도 꿈이 있었지. 막장 인생이 내 꿈은 아니었거든. (꿈을 꾸는 눈빛으로 소주를 마시고) 꿈꾼다고 다 이루어 집디까? 자식 생각 부모보다 더 하는 사람 있습디까? 우리 애는 보내지 않을 테니 그리 아쇼. 내 미안해서 그러니, 이거나 한잔 더 하구

갑시다.

현우: …….

-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9. <보기>와 윗글에 드러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우: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냉철한 성격 을 가짐.
- ② 용석: 자존심이 강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음.
- ③ 용석: 주관이 뚜렷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김.
- ④ 용석 부: 아버지로서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하 지만 용석을 많이 사랑함.
- ⑤ 용석 부: 용석이 음악을 하는 것을 반대함.

**10. <보기>와 윗글에 드러난 갈래의 특성으로 적절 한 것은?**

- ①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 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제시 된다.
- ③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과거형으로 표현된다.
- ④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갈래이 다.
- ⑤ 함축적인 언어와 운율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제시한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현우는 용석의 아버지를 만나고 온 뒤, 아버지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다며 용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 ① ‘오빠가 준 목걸이 팔아서 술 먹었어.’에서 연희는 현우가 준 목걸이를 팔아 술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② 연희가 연주를 부탁하자 현우는 사람들이 다 자는데 욕먹는다며 거절한다.
- ③ 현우는 용석의 아버지가 암스트롱의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유일한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⑤ 용석은 광부 집 자식으로서 돈 많이 드는 여자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수정이가 칭얼거리거나 한다며 헤어졌음을 밝힌다.

### 2. 정답 ③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점차 밝게 변화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① 현우와 연희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 문제와 음악 활동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갈등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S#5, S#74 등의 표시를 통해 이 글이 시나리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장난스러우면서도 장난만은 아닌)’, ‘(허탈한 웃음이 보이는 듯)’ 등의 지시문이 나타난다.
- ⑤ 앞부분은 연희와의 이별을, 뒷부분은 제자 용석과의 대화를 다루고 있다.

### 3. 정답 ④

지문에서 링거를 매단 나무는 연희가 아니라 현우의 상황, 즉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현우의 처지를 상징하는 소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반복되는 노랫가락은 헤어지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상징한다.
- ② 현우는 용석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듣고, 마치 연희가 자신을 떠난 상황을 떠올리며 감정적

으로 반응한다.

- ③ 현우의 ‘선물두 평평 해 주구 그러구 싶지 않니? 근데 음악하면 그게 잘 안되거든.’이나 ‘아버지 말씀두 일리가 있더라구. 난 아버님이 용석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⑤ ‘내가 뭐 재벌 집 자식이에요?’라는 용석의 대사 에서 알 수 있다.

### 4. 정답 ④

문 닫힌 약국, 눈 쌓인 거리, 철길 등은 탄광촌의 모습을 제시할 뿐 용석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어둡고 낡은 현관은 이별을 앞둔 두 인물의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링거를 매단 나무는 음악이라는 열정만으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현우의 상황을 상징한다.
- ③ **[매력적인 오답]** 변덕스러운 날씨는 용석이 처한 갈등 상황과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 ⑤ 소절을 잊지 못하는 연희의 연기는 연희와 현우의 정체된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5. 정답 ②

연희는 ‘그땐 우리가 참 많이 사랑했었나 봐.’, ‘나 버린 남자랑 나 좋다는 남자랑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해 볼려고.’ 등에서 여전히 현우를 사랑하지만 현실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연희는 현우에게 연주를 부탁할 정도로 그의 음악을 좋아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시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목걸이를 판 것은 이별의 슬픔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부유한 남자에게 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나이 들에 대해 언급하지만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연희는 현우에게 학원 강사를 병행하라고 권유할 뿐,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현우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6. 정답 ⑤

용석은 현우가 흥분하며 횡설수설하자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라고 묻는다. 현우의 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용석도 느끼고 있다.

- ① 용석과 현우의 대화에서 용석의 아버지는 용석이 음악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고에 가라는 현우의 설득에 “그런 게 뭐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용석의 대답에서 용석은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내가 뭐 재벌 집 자식이에요? 광부 집 자식이!”라는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수정이가 연습 중에 전화하거나 사달라고 조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 ④ 아버지가 한 말이 ‘뺨’인 줄 알았으나 현우의 확인을 통해 흐뭇해하며 믿게 된다.

7. 정답 ⑤

현우가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어린 나이에 꿈을 접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초라한 현우의 모습으로 냉정한 현실을 제시하려는 제작 노트는 적절하지 않다.

- ① [매력적인 오답] 현실의 벽에 부딪혀 탄광촌으로 내려간 현우가 꽃 피는 봄이 오기까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탄광촌에서 현우와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정감 있고 따뜻한 시선을 담는다는 제작 노트는 적절하다.
- ③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므로 주변 인물들과 서로 밀도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담는다는 제작 노트는 적절하다.
- ④ 아이들이 ‘성공리에 연주를 마친다’라고 했으므로 현우와 관악부 아이들의 연주 음악을 아름답게 제시한다는 제작 노트는 적절하다.

8. 정답 ②

현우는 연희와 음악만 하는 사람이랑은 못 산다는 문제로 갈등했고, 용석 역시 돈 많이 드는 애를 만날 수가 없다며 경제적 이유로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 ① 용석이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여 음악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용석의 아버지가 음악을 반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만 현우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현우가 도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내려왔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용석은 도시에서 탄광촌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⑤ 두 인물은 서로를 아끼고 고민을 나누는 관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나 스승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9. 정답 ①

현우가 ‘용석 부’나 ‘용석’을 설득할 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되려 용석을 설득할 때는 자신의 자책하는 마음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윗글의 용석이 수정이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용석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알 수 있다.

③ 윗글의 용석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흐뭇해서 웃으며’를 통해 용석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김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저 놈 클 때까지는 옆에 있어줘야지. 그게 내 지금 하나 남은 바람이요. 그래도 이런 아버지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테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의 ‘난 아버님이 용석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기>의 ‘우리 애는 보내지 않을 테니 그리 아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정답 ①

<보기>와 윗글은 극 갈래의 시나리오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극 갈래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③ 극 갈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 ④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맞지만, 서사 갈래가 아닌 극 갈래이다.
- ⑤ 함축적인 언어와 운율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화자)의 정서를 제시하는 것은 서정 갈래이다.